



리더가 앞장서야 한다. 리더는 옆에 앉아서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주기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다. 리더는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먼저 하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. 리더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. 리더는 탁상공론자나 수수방관자와는 달라야 한다.

먼저 일을 시작해야 하는 사람이라면 마치 할 무어 중령(Lt. Col. Hal Moore)과 같아야 할 것이다. 영화 <위 워 솔저스 (We Were Soldiers)>에서 멜 김슨이 맡은 무어 중령은 베트남을 떠나기 전에 부대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. “우리는 이제 거칠고 지독한 적과의 전투 현장으로 들어간다. 나는 그대들 모두가 살아서 집으로 갈 수 있다고 약속해줄 수 없다. 그러나 전지전능한 신 앞에, 그리고 그대들 앞에 맹세하노니, 내가 제일 먼저 전투지역을 디딜 것이고 제일 나중에 발을 뗄 것이다 내 뒤에 아무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. 살아서든 죽어서든, 우리는 모두 함께 집으로 갈 것이다. 신의 가호가 있기를!”

이와 같은 비장한 시작이 필요하다. 이는 확신과 용기를 불어넣어주며 신뢰를 도모하는 헌신을 전달해주기 때문이다.

당신은 “부대원”들에게 어떤 말로 시작할 것인가?